

[종합·해설]

강진, 완도 어디로 불이나

■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 남은 쟁점은

전남 지역 선거구 분할 최대 난제로 2개안 중 택일...정개특위 선택 주목

강진·완도 지역구 조정 문제가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의 최대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18대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전남 지역 지역구 조정을 사실상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2개 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일단 1안은 강진·완도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함에 따라 강진을 인근의 영암·장흥 지역구로 볼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선거구를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해 영암·장흥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강

광주 전남 선거구 획정안

1안	2안
의원정수 301명(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6석)	의원정수 303명(지역구 247석, 비례대표 56석)
인구 상·하한 하한 10만549명, 상한 30만1천646명	인구 상·하한 하한 9만9천735명, 상한 29만9천204명
▲분구: 광주·광산구 ▲합구: 전남 여수시 갑·을 통합 ▲통폐합: 전남 강진·완도	▲분구: 광주·광산구 ▲합구: 전남 여수시 갑·을 통합
전남지역 조정안 (13곳→11곳)	전남지역 조정안 (13곳→12곳)
광양시, 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나주·함평·화순·장흥·영암·강진·완도·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신안, 고흥·보성, 니주·회순은 현행유지)	광양시, 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나주·함평·화순·장흥·영암·강진·완도·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신안, 고흥·보성, 해남·진도는 현행유지)

진·완도에 영암을 불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강진·완도를 조정하지 않고 멀쩡한 지역구인 영암·장흥 지역구를 해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 측은 국회 정

개특위에서 영암과 강진을 불이이고 장흥과 화순을 합치는 한편 완도는 해남·진도나 화순·장흥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어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전남지역 지역구 재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선거구 획정 총선 예비후보들 웃고 울고

광주 서구 현행 유지 광산 분구에 '희망' 전남 여수시 등 2곳 줄어드나 '한숨'

18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현역 국회 의원들과 총선 예비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광주 서구가 현행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획정안이 나온에 따라 이곳에 둘지를 틀었던 예비후보들은 한 칸 더았다는 반응이다.

광주 서구는 인구 감소로 인해 1개 선거구로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하한선을 낮출에 따라 현행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광산구도 분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분구의 기준선에 관심을 기울이며 바닥

을 닦고 있다.

광주에 비해 전남지역 현역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당장 여수시의 경우, 사실상 1개의 선거구로 통합이 확실시됨에 따라 주승용 의원과 김성곤 의원의 경쟁구도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두 번째 안(영암·강진·완도, 해남·진도)대로 지역구가 조정될 경우, 유선호 의원과 이영호 의원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두 지역구에 포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도 획정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엉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의 2안이 현실화된다면 장흥·화순이라는 새 지역구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이곳에 연고가 있는 입지자들의 이동도 점

쳐진다. 영광·함평의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인해 인근의 담양·곡성·장성의 지역구가 담양·곡성·구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호석 의원은 신설 지역구인 담양·곡성·구례로의 이동이 점쳐지고 있으나 광주 광산 및 서을 진출설이 제기되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다.

영광·함평은 영광·함평·장성(1안)이나 영광·장성(2안)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광·함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장성 출신인 김호석 의원의 이동으로 부담은 덜한 상황이지만 타 예비후보들은 국회 정개특위의 마지막 조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양·구례의 지역구는 광양으로 사실상 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역의원인 유효근 의원은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철기 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걱정을 던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창조한국당 前지도부 탈당... 사실상 왜해

창조한국당 창조준비위원장과 공동대표, 최고위원 등을 지난 핵심인사들이 14일 '창조한국당을 통한 정치실험이 실패했음을 인정한다'며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대선에 문국현 대표를 도왔던 이경이 정자간 공동대표와 정

범구 전 최고위원, 이근우 광주시장 위원장, 주선국 대구시당 위원장 등은 이날 '창조한국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생정당 창조한국당은 끝내 1인 정당의 한계를 드러냈고, 당의 진로와 정치적 혁안들에 대한 다양한 토론 자체가

정치를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는 우리들의 정치실험이 실패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시민정당을 건설해보자'던 애초의 다짐이 창조한국당에서는 더이상 실현되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30일 창당한 창조한국당은 3개월 보름만에 사실상 왜해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봉쇄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는 당내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조한국당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와 권력 솔루션, 성장 지향주의 등에 대항해 사

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는 우리들의 정치실험이 실패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시민정당을 건설해보자'던 애초의 다짐이 창조한국당에서는 더이상 실현되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30일 창당한 창조한국당은 3개월 보름만에 사실상 왜해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선거 관리 교육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서울 등 전국 9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장 등 2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선거관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연수회에서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한 법규 운용, 정당·정치자금, 선거관리, 인터넷 선거보도, 감시·단속 등 분야별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위직당기자 jrw1@kwangju.co.kr

통합민주당 '전국정당화' 시동

손학규 대표 당 통합 후 영남지역 첫 방문

통합민주당(가칭) 손학규 대표가 14일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국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이겠다"며

'전국정당 복원'의 기치를 내걸었다.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성사 이후 첫 방문지를 통합민주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대구로 선택한 손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남의 통합 민주당 지지기반이 허약한 것을 잘

알고 영남 주민에게는 양당의 통합

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는 것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18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에 특별한 의지를 갖고 비례 대표를 배정하겠다"며 "영남 출신이 통합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런 희망을 갖는 정치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손 대표는 이어 "당내 인재영입위원회가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영남지역에 대해서는 영남지역 인재영입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손 대표의 '영남 보듬기'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성사를 계기로 전통 지지층의 복원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취약기반인 영남까지 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의미 있는 '견제 야당'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의 이미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北 '퇴짜'

〈남북정상회담〉

김위원장 불참으로 설치 무산... 크기 줄이고 문안 고쳐 나중에 세워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념식수에 대해 양 정상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준비해 갔으나 김 위원장 대신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식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표지석은 쓸 수가 없게 됐다.

천 수석은 "실제로 나중에 설치한 표지석은 정상회담 기념식수가 아니라 당연히 평양방문 기념식수가 된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정상회담을 기념하려면 양 정상이 같이

나무여야 정상회담 기념식수

못한 것으로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후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측과 협의한 끝에 대선 전날인 12월18일 방북, 노 대통령 이름만 적힌 새로운 표지석을 설치했다.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양 방문 초기까지

기념식수장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

는 것으로 해서 표지석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 스스로 (표지석 크기) 축소한 것"이라며 "처음에 만든 표지석 크기도

남북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김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음을 읽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미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주전)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향상과 아이큐 향상을 더 오르는 I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빌드업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2층) 무등고시학원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마술지도자 강사취업 연구생 모집(마술지도자 자격증 과정)

■ 각종행사·마술출장공연·어린이관련행사·교회행사

■ 각종복지관·초·중등특기 적성 마술교사로 활동 하실 분

- ① 교육기간 : 주 2회 4개월 완성
- ② 교육내용 : 초급 중급 고급과정, 아동심리학, 아동지도론, 마술학개론(이론+실습)
- ③ 모집인원 : 20명 한정교육

수료후특전

- 전원 취업 추천
- 마술지도자 자격증 취득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개별영학 교육학+전공 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고수전과 함께 시작하세요!

교육학 김인식 교수(작강)<br